

벵갈호랑이 새끼 출산 우치동물원 “경사 났네”

4년생 ‘아롱’이 암수 한쌍 낳아

광주 우치동물원에 호랑이 새끼 한 쌍이 태어났다.
광주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5일 새벽 동물원에서 사육중인 벵갈산 호랑이 암컷 ‘아롱’이가 1kg남짓 되는 암수 새끼 한 쌍을 순산했다”고 6일 밝혔다.
사육사들은 이날 오전 9시 어미 젖을 빨고 있는 새끼 호랑이 두 마리를 발견하고서야 출산 사실을 알았다. 어미는 이미 태반을 먹어치웠고, 새끼들의 털도 보송보송 말라 있었다.
새끼를 낳은 ‘아롱’이는 2003년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수컷인 ‘사랑’이(4세)와 함께 우치동물원으로 동지를 옮긴 4년생이다.

‘아롱’이는 ‘사랑’이와 같은 사육사에서 졸공 함께 지내다가, 지난 6월 짝짓기를 하면서 새끼를 뱃다.
동물원은 호랑이의 임신기간이 100~110일 정도인 것을 감안해 일주일 전 다른 호랑이들과 격리,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줬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 보통 야생 호랑이는 어미에게 보육하는 방법을 배우지만, ‘아롱’이는 동물원에서 나오 자라 새끼를 제대로 기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보통 어미들이 3~4마리를 낳는 데 ‘아롱’이는 초산(初産)인 관계로 다소 적은 2마리를 낳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우치동물원에선 호랑이가 태어나긴 했지만 열악한 환경 등으로 다 자라지 못하고 숨졌다.
동물원 관계자는 “이 새끼들이 온

전히 잘 자라 준다면 1992년 남구 사직동물원 시대 마감 후 우치동물원에서 나고 자란 첫 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원은 어미가 새끼 호랑이들을 기르는 데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두 달 쯤 후에 새끼들을 호랑이 방사장에서 일반에 공개하고,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의미 있는 이름을 붙여주기로 했다.
윤병철 사육계장은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는 것을 보면 새끼들이 어미 곁에서 자랄 수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어미의 상태가 예민해 불안을 느끼면 새끼를 물어죽이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면서 “새끼를 어미 곁에 둘지 아니면 인공 포육을 할 지는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지난 5일 새벽 우치동물원에서 태어난 새끼 호랑이 한 쌍이 6일 어미 호랑이 ‘아롱’이의 젖을 빨고 있다. /위작량기자 jrwi@kwangju.co.kr

작곡가 정율성 생가 위치 논란 속 복원추진위, 불로동에 탄생비 제막

남구청 “토지대장으로 생가 주장 억측”

광주 출신 중국 현대 음악 작곡가 정율성(1914~1976) 선생의 생가 위치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 남구청은 6일 ‘정율성선생 생가복원 추진위원회(회장 정승렬·이하 위원회)’가 오는 19일 광주시 동구 불로동 히딩크관광호텔에서 ‘탄생 기념비 제막식’을 강행하기로 한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남구청은 “역사적 사실을 고증할 때는 논리적인 증거 서류가 있어야 하지만 거주 여부도 알 수 없는 토지대장만 가지고 생가 주장을 하는 것은 억측이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정율성선생 생가복원 추진위원회(회장 정승렬)는 지난 3월 ‘한국이 낳은 동아시아 최고의 음악가 정

율성 선생 출생지 고증과 한·중문화 교류에 대한 세미나’에서 역사학자 이이화(69)씨의 말을 빌어 “정 선생의 출생지는 광주시 동구 불로동 163번지, 현 히딩크호텔관광호텔 부지”라고 주장, 오는 19일 탄생 기념비 제막식을 앞두고 있다.
광주시 남구청은 “양림동 생가(79번지)는 이미 정 선생의 딸 소제씨와 국내 생존하는 가족들이 생가임을 확인한 장소”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혁명음악의 대부라 불리는 정율성 선생은 광주 출신으로 1933년 중국으로 건너가 항일 운동을 펼쳤다. 광주시 남구청에서는 오는 12월 ‘사후 30주년 기념 음악제’를 겸한 ‘제2회 정율성 국제음악제’를 개최한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광주·전남 지방병무청 최우수 혁신 사례 선정

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김노운)의 ‘병무행정 변천사’발간이 2006년도 병무청 최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최경일기자 cki@kwangju.co.kr

병무청은 지난 1일 각 지방병무청의 우수 혁신 사례를 모아 선별하는 ‘병무 혁신 우수 사례 발표대회’를 갖고 이 중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정길섭 현역입영팀장이 발표한 ‘지식 병무 행정의 새로운 장(병무행정 변천사)’을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최경일기자 cki@kwangju.co.kr

또 정상급 가수들 광주 온다

한국의 동방신기와 버즈, 일본의 아라시와 코다쿠미 등 아시아 8개국 최정상급 가수들이 광주에서 한 무대에 선다.
광주시와 (재)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은 “오는 22일 오후 6시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제3회 아시아송 페스티벌(The 2006 Asis Song Festival)을 개최한다”

가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또 중국의 쑨난, 베트남의 호킨 호영, 태국의 카트리야 잉글리쉬, 필리핀 키치 나달, 싱가포르 타냐 추아 등 아시아의 최정상급 가수들이 대거 출연한다.
주최측은 보아나 신화, 이효리 등 3개 팀 중 1개팀을 추가로 섭외할 예정이다.

22일 월드컵경기장서 아시아송 페스티벌 동방신기·H 최고그룹 아라시 등 참여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신현택 이사장은 “아시아송 페스티벌은 아시아의 대표적 콘서트로 아시아인 전체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대중 음악 교류를 통해 ‘아시아 문화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200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제1회 대회는 서울에서 개최됐으며, 2회 대회는 APEC정상회담 전야제로 부산에 열렸다.
이번 광주 개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일본 최고의 그룹인 아라시를 비롯해 색사가수 코다쿠미, 한국을 대표하는 동방신기와 버즈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신현택 이사장은 “아시아송 페스티벌은 아시아의 대표적 콘서트로 아시아인 전체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대중 음악 교류를 통해 ‘아시아 문화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200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한편 아시아송페스티벌의 입장권은 무료로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홈페이지(www.kofice.or.kr)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매시기는 추후 공지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비엔날레 기간 음식값 10% 인하

북구청관내 327업소 참여

제6회 광주비엔날레 기간 동안 행사장 인근 식당의 음식값이 10% 인하된다.
음식값이 할인되는 업소는 입구에 비엔날레 홍보문구와 함께 음식값 할인업소임을 표시한다.
광주시 북구청은 6일 이번 행사에 5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 등을 위해 북구관내 식품접객업소 327개소의 협조를 얻어 음식값을 10%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하는 업소는 한식류 268곳, 경양식류 22곳, 뷔페식당 7곳, 일식류 30곳 등 총 327개의 식품접객업소(모범음식점 224, 행사장 주변업소 103)이다.
음식 값 10% 인하는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는 8일부터 폐막식 날인 11월 11일까지 계속된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14일은 후원자-결연아동 만남의 날

한국복지재단 광주지부

한국복지재단 광주지부는 6일 “지부개설 40주년을 기념해 후원자와 결연아동이 함께 만나는 ‘2006 후원자-결연아동 만남의 날’ 행사를 오는 1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후원자 180명과 결연아동 220명 등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광주시 서구 광전동 경복궁웨딩컨벤션 4층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될 계획이다. 행사는 1·2·3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광주 ‘성민여자’ 아동 20명의 합창과 ‘신애원’ 아동 6명의 댄스 공연, ‘광주노동조합풍물패’ 10여 명의 풍물공연 등도 결연아동 예정이다.
유길원 광주지부장은 “후원자에게는 활동에 대한 보람을, 결연아동에게는 후원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느끼게 하고 자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행사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생활안내

| 교통안내 | 기정법률상담소 | 학교폭력 |
|--------------------|-----------------------|--------------------|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80-8114 | 보전복지협회성폭력상담소 671-4050 | 국번없이 112 |
| 철도안내 1544-7788 | 광주 YMCA 527-0011 | 전남경찰청 226-0112 |
| 대한항공 222-2000 | ●24시간 청소년상담 | 광주지검 233-2828 |
| 아시아나항공 221-6300 | 국번없이 1388 | ●사이버테러 |
| 한국도로공사 1588-2505 | ●국제종합상담센터 | ●가정폭력 |
| | 국세청 1588-0060 | 여성긴급 국번없이 1366 |
| | ●병무민원상담 | 여자형사기동대 363-0155 |
| | 광주전남병무청 1588-9090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 | ●소비자 상담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 | 광주 YMCA 232-6133 | ●광주이동학대예방센터 |
| | 광주 YMCA 524-5400 | 국번없이 1391 |
| ●당직변호사(7일) | 주부교실 232-0643~4 | ●광주노동학대예방센터 |
| 김군영 226-7400 | 녹색소비자문제연구 369-9881 | 국번없이 1389 |
| ●법무사회 법률상담(7일) | | |
| 김희근 239-1809 | | |

100% 천연실크가 피부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지켜드립니다

02-512-8978

(주) 자스미실크